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尹 “가짜평화론 활개쳐…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향군 창설기념식서 “가짜뉴스·허위선동이 민주주의 위협, 여러분이 나라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속 자리했다.

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종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면서도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차례 가까이 박수가 나왔다.

이번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정부에서 박만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웅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송원기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경영해…다 밝힐 것”

“큰 위기에 몰렸던 회사
고통스럽게 살려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때 소상히 주식 이동상황과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100번도 더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양 매각하고, 남편 지분은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주식을 재인수한 배경에 대해 “2018년 전후로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자 우리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청했고, 저희 부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고 2019년까지 주식을 전량 사줬다”고 설

명했다.

이어 “당시 대표와 그의 우호지분, 투자회사의 지분, 우리사주까지 거의 전량 매입했다. 그야말로 빙점데기에다가 빙만 남은 회사의 주식을 거의 대부분 샀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지분을 매각했던 2013년 당시 소셜뉴스는 흑자를 냈고, 매출은 2013년 12억5천930만원에서 2017년 41억1천18만원으로 연평균 34.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셜뉴스 지분을 다시 사들여기 시작한 2018년에는 매출이 33억7천7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회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을 때가 2018년과 2019년”이라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바로 그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 키가 166cm인데 몸무게가 44kg까지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며 “그 정도로 어려운 위기에 몰린 회사를 살려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직전까지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청문회가 시작되면 부끄러움 없이 경영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우 기자

홍익표 “유인촌 ‘김윤아 신증해야’ 발언 자체가 블랙리스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가수 김윤아 씨 등 유명인의 사회적 견해 표명과 관련,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이런 분들의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건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김윤아 씨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 신중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했다고 해서 크게 당 차원에서 문제 삼거나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일단 5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증인 문제 등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제일 문제”라며 “정부가 전혀 증액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여야 간 협의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단식 후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전날 만났다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당무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주석 민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16주년을 맞은 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 어달리기 정신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립과 대결 일변도 태도로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남북대화 노력을 당부했다.

/ 김희찬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 -1082



국토부, 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국감 전 경제성 분석”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논란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안·대안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



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10일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B/C값을

도출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공의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답변 요구에는 “국감 등이 예정돼 있어 진행 과정을 봄아 향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 신재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포천 저수지에 추락한 헬기는 43년 된 노후 기종

3일 경기 포천시 고모리 저수지에 추락한 민간 헬기는 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과 민간 헬리콥터 업체에 따르면 사고가 난 헬기는 흥의항공 소속 AS-350(6인승) 기종으로 1980년 10월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흥의항공은 이 헬기를 중고로 매입했다.

이 헬기는 지난 3월 15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이다. 또 지난 2011년 강릉시 산불예방 훈련 중 추락한 산림청 소속 헬기와도 동일한 기종이다.

흥의항공 관계자는 “헬기 기령은 40여 년 됐고 중고로 매입했다”며 “정비팀에서 헬기를 관리하고 산불 진화 작업 전 항상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 헬기를 기울 산불 발생에 대비해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임차했다.

3월 영월군·2011년 강릉시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

국토부가 사고 조사 진행…“통상 1년 이상 걸려”

일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기체가 인양되면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가 인계 받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 관계자는 “기체 상태와 블랙박스 등을 정밀히 조사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통상 1년 이

상 결린다”고 전했다.

국토부 조사 후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판단되면 경찰은 헬기 소유 업체 측

과 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헬기를 몰다

추락해 숨진 기장 A(67)씨의 시신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내일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이천민 기자

이에 행안부는 소방·경찰 등과 함께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 특히 서울세계불꽃축제(10월 7일·105만 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월 4일·100만 명 예상)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데다 화약류를 사용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경찰 등과 함께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인파 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 서정미 기자



3일 오전 경기 포천시 고모저수지에서 추락한 헬기는 물에 절반 정도 기체가 잠겼다가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몇 차례 회전하다가 추락했다.

핼러윈데이 등 가을철 축제

인파 관리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 등 가을철에 열리는 지역축제의 인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 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을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된다.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간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32건 중 16건이 가을철에 발생했다. 행안부는 먼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에는 40여 곳으로 확대한다. 인파 분산·통제, 구조·구급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 특히 서울세계불꽃축제(10월 7일·105만 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월 4일·100만 명 예상)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데다 화약류를 사용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경찰 등과 함께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인파 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정부 “日오염수 2차 방류 점검할 전문가 3차 파견”

정부는 5일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맞춰 우리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한다고 4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일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회상회의 등 앞서 2차례 파견된 전문가들과 유사한 일정을 소화하며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3차로 파견되는 전문가들 출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독 광부·간호사들로 이뤄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이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등을 노래하는 공연도 진행됐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파독 근로자들의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 송원기 기자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기후위기 인명피해 최소화하는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한다

행안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올해 여름 궁평2지하차도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토론회로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올해 초 법정부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

했고, 법정부 특별팀(TF)을 운영해 재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안부는 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의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혁신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급변하는 기후상황을 반영해 재원이 기존보다 더 소요되더라도 방재 인프라와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위험지역 관리대상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능형 CCTV, 디지털트윈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재난대응 업무를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6호 태풍 카눈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응기관간 유기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특별세션에서는 재난 대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과제 및 디지털트윈 활용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2부 분과별 세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개선을 위해 6개 분과 관련 전문가 총 60여 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상기후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종익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다음 中응원, 해외세력 조작"

한총리, 여론조사방지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테스크포스(TF) 구

성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방통위 "해외서 VPN 악용접속·매크로 조작 네덜란드 50%·일본 30% 경유해 접속"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

다.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든 '응원클릭' 약 3천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 송진영 기자

국정원 "北, 김정은 군함 건조 지시에 南 조선사 해킹"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중장비가 이동하는 모습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8~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주요 조선사에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정보 기술(IT) 유지·보수 업체의 PC를 점거·우회 침투하거나 내부 직원을 상대로 피싱 메일을 유포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들이 우리 조선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김정은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은 국무위원장은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해군 무력 강화와 선박 공업 발전을 중요 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해킹 공격이 예상되는 업체들에도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 김현우 기자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일당 범죄집단조직죄 확대 적용하라"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A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 관리책 등이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확대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지만 공모자 전원으로 해당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이 중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A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 관리책 등이다.

/ 곽현성 기자



육아 근로시간단축 신청 기준 완화…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범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홍지민 기자

이동관 “다음 中 응원, 방지하면 국기문란…긴급입법해야”

국무회의서 긴급현안 보고…“뉴스타파 사태 이어 국민 충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스티벌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이런 게 방지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긴급 현안 보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국무위원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國內에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기자들에게는 “방통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법부처 TF에서 논의를 좀 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면 제재 방안도 나오고 제도적

개선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야 문제가 아니다.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9·11테러도 첨보와 예후가 있었지만 ‘설마’ 그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기현 (여당) 대표도 과거에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진영 논리에 빠져 계류 중으로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긴급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 노승만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될 듯

재판부 “구속 기간 내 재판 어려워”…검찰 “정진상 조건 준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로 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은 쌍방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로, 기한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한다.

다만 김 전 대표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찰 측 증인 등을 만나서 탐문하는 것도 금지된다면 변론권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최희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 의심” 112신고 알고 보니 마약 투약자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경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8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도로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조치를 위해 A씨에게 다가갔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의 언행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투약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했다.

/ 조규현 기자



코인 사기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영장심사 출석

이번엔 900억 코인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코인 판매대금 270억 유용

공범인 동생도 함께 구속기소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

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20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계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의문화돼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 일 가능성이 높다면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혐의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의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 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 송진영 기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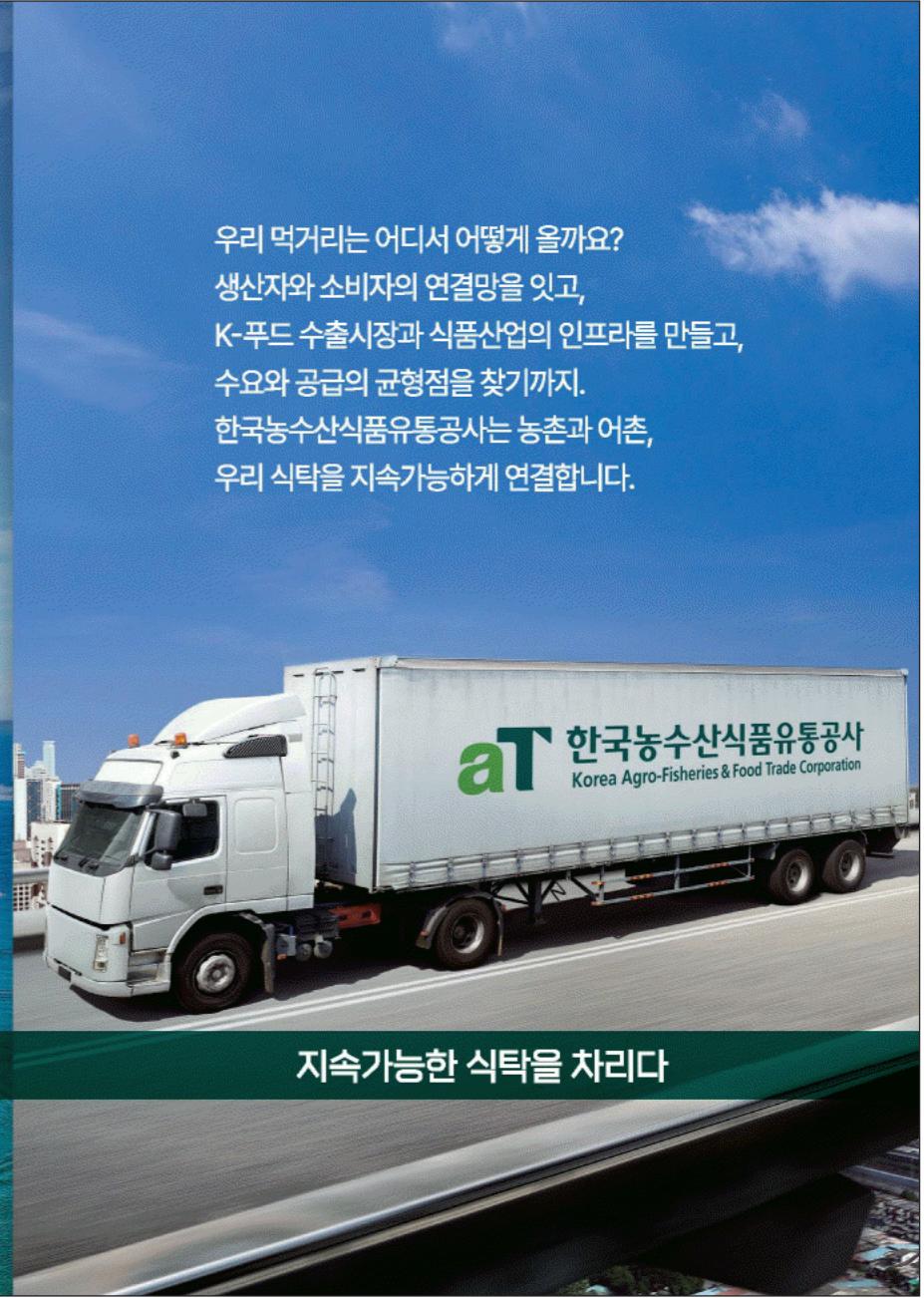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食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의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SONATA The Edge



 HYUNDAI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불사번 원풀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안비 ▶ 쏘나타(DN8) 개조 2.0 CVVL (17", 빌트인캡 미장착): 복합 12.3km/ℓ / 도심: 10.9km/ℓ, 고속도로: 14.5km/ℓ | CO2 배출량: 135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75kg | 자동 6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CVVL (17", 빌트인캡 미장착): 복합 12.6km/ℓ / 도심: 14.5km/ℓ, 고속도로: 13.2km/ℓ | CO2 배출량: 132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75kg | 자동 6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CVVL (18"): 복합 12.0km/ℓ / 도심: 10.7km/ℓ, 고속도로: 14.1km/ℓ | CO2 배출량: 139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5kg | 자동 6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CVVL (19"): 복합 11.7km/ℓ / 도심: 10.5km/ℓ, 고속도로: 13.6km/ℓ | CO2 배출량: 142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25kg | 자동 6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1.6 T-GDI (17", 빌트인캡 미장착): 복합 13.2km/ℓ / 도심: 11.6km/ℓ, 고속도로: 15.7km/ℓ | CO2 배출량: 139g/km | 배기량: 1,490kg | 자동 6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1.6 T-GDI (17", 빌트인캡 미장착): 복합 13.5km/ℓ / 도심: 11.9km/ℓ, 고속도로: 15.9km/ℓ | CO2 배출량: 142g/km | 배기량: 1,490kg | 자동 6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1.6 T-GDI (18"): 복합 13.0km/ℓ / 도심: 11.4km/ℓ, 고속도로: 15.5km/ℓ | CO2 배출량: 126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8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1.6 T-GDI (18"): 복합 13.0km/ℓ / 도심: 11.4km/ℓ, 고속도로: 15.5km/ℓ | CO2 배출량: 126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8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1.6 T-GDI (19"): 복합 12.6km/ℓ / 도심: 11.1km/ℓ, 고속도로: 14.9km/ℓ | CO2 배출량: 126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8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2.5 T-GDI (19'): 복합 11.1km/ℓ / 도심: 9.4km/ℓ, 고속도로: 14.1km/ℓ | CO2 배출량: 15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10kg | 자동 8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5 T-GDI (19'): 복합 9.6km/ℓ / 도심: 8.3km/ℓ, 고속도로: 11.7km/ℓ | CO2 배출량: 136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40kg | 자동 8단 (3등급) ▶ 쏘나타(DN8) 개조 2.5 T-GDI (19'): 복합 11.1km/ℓ / 도심: 9.4km/ℓ, 고속도로: 14.1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17"): 복합 12.7km/ℓ / 도심: 10.4km/ℓ, 고속도로: 14.0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17"): 복합 12.7km/ℓ / 도심: 10.4km/ℓ, 고속도로: 14.0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18"): 복합 12.4km/ℓ / 도심: 10.1km/ℓ, 고속도로: 13.8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18"): 복합 12.4km/ℓ / 도심: 10.1km/ℓ, 고속도로: 13.8km/ℓ | CO2 배출량: 13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19'): 복합 12.1km/ℓ / 도심: 9.8km/ℓ, 고속도로: 13.5km/ℓ | CO2 배출량: 138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19'): 복합 12.1km/ℓ / 도심: 9.8km/ℓ, 고속도로: 13.5km/ℓ | CO2 배출량: 138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하이브리드 (16'): 복합 17.6km/ℓ / 도심: 17.8km/ℓ, 고속도로: 18.8km/ℓ | CO2 배출량: 8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5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하이브리드 (16'): 복합 17.6km/ℓ / 도심: 17.8km/ℓ, 고속도로: 18.8km/ℓ | CO2 배출량: 84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50kg | 자동 6단 (4등급) ▶ 쏘나타(DN8) 개조 2.0 GDI 하이브리드 (16'): 복합 17.1km/ℓ / 도심: 16.8km/ℓ, 고속도로: 17.4km/ℓ | CO2 배출량: 93g/km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85kg | 자동 6단 (4등급) ※ 위 면보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측할 면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일 사양(구동축, 인승, 터보) 모델에 '빌트인캡 장착/미장착'으로 볼도 구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차와 빌트인캡 장착 차종의 면비 통합 인증 사양입니다. ※ 금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데리점의 카미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은 가격으로 비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구상·인사에 엑스포까지…연휴 끝낸 재계, 과제 산적

삼성, 25일 故이건희 3주기 맞아 추모 분위기…‘신경영 선언’ 되새길 듯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에 접어들며 재계는 내년 사업 전략 구상과 연말 인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이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불투명해진 만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분주한 모습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달 25일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별세 3주기를 앞두고 각종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막형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삼성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한 이 선대회장의 ‘신(新) 경영 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분위기를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에는 삼성 서초사옥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가 후원하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는 3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로저 마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등이 연사로 참석해 기술, 전략, 인재, 상생, 신세대, 신흥국 등 6개 분야에서 이 선대회장의 리더십과 삼성의 신경영을 재조명한다.

삼성은 앞서 지난달 19일 이 선대회장이 시작한 삼성 안내전 사업의 30주년 기념행사를 열며 추모 분위기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27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만큼 난국을 극복할 ‘뉴



삼성화재 안내전학교 30주년 기념식 참석한 이재용 회장(홍라희 전 리움 관장)

삼성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취임 1주년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후 예년대로 12월 초에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이 모인 가운데 현안을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반도체와 가전 등 실제 부진을 겪는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고강도 인사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SK그룹은 이달 16~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전략을 구성하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열었다.

최태원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 협의회 의장, 각 계열사 CEO 등 30여명이 모여 최근 SK그룹의 주요 핵심인 ‘딥 체인지’(근본적 혁신)를 가속화 방안을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등 업무 방식 혁신, 합리적 평가·보상책 마련 등이 논의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CEO 세미나가 끝나면 연말 인사를 위한 평가 자료 취합 등 준비 작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통상 매년 12월 첫째 주에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거쳐 임원 인사를 시행한다. 올해에도 별다른 요인이 없어 같은 시기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위기 등으로 경영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인사 폭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신사업 분야 등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 성장 드라이브를 건다는 취지로 세대교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통상 12월에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 인사에서는 전기차, 목적기반차량(PBV),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그룹 신사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상대적으로 약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11월 말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 20일 임원 인사를 냈지만,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만큼 10~11월 중에 인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통상 재계에서 조기 인사는 실제 부진에 따른 고강도 충격요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LG그룹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6일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고객 가치 경영’ 내재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한 달간 계열사별 사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LG그룹은 매년 상반기에는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전략보고회를, 하반기에는 경영실적과 다음 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사업보고회를 열고 있다.

이번 사업보고회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계열사별 전략을 점검하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ABC)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11월 하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할 전망이다.

/ 송원기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 정보

경유 가격 9개월만에 1천700원 돌파

휘발유 1천800원 육박

국제유가 상승세…주유소 기름값 12주 연속 올라

국제 유가는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L(리터)당 1천700원을 돌파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천700.03원을 기록했다.

1천700원대 진입은 올해 1월 8일(1천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지난해 7월 2천1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해 6월에는 1천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1천796.32원으로 약 14개월 여만에 1천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휘발유 가격이 마지막으로 1천800원 대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해 8월 12일(1천805.86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천878.77원), 제주(1천839.98원) 강원(1천808.61원), 세종(1천807.09원), 충북(1천805.63원), 경기(1천801.62원) 등에서는 이미 평균 1천800원을 넘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도 지난주까지 12주 연속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업계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 박자석 기자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AI가 다른데,
맞춤형으로 AI를 쓸 수 없을까?

KT의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AI 전문 반도체를 만드는 리밸리온,
산업별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레와 함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KT 클라우드로
KT만의 AI 풀스택을 완성했으니까요

어떤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KT가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춤 KTAI

DIGICO KT



이제 이사·혼수 시즌…가전 양판점서 할인 판촉전



가전 양판점이 10월 이사·혼수 시즌을 맞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달 한 달간 ‘다다익선 가전페어’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인기 브랜드의 대형가전과 생활, 주방가전 등을 함께 구매하면 엘포인트(L.POINT) 적립, 롯데모바일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준다.

단품 행사 상품도 제품 가격 할인, 롯데모바일상품권 증정 등을 통해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전자랜드도 이달 내내 ‘혼수·이사 가전할인 페스타’를 진행하고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최대 20% 할인 및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인기가전 ‘리퍼마켓’ 행사도 마련했다. 단순 개봉 제품이나 스크래치 등의 사소한 결함이 있는 가전을 최대 7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구매 기능·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새 상품으로 교환도 해준다.

아울러 쌀쌀해진 날씨 속에 미리 겨울을 준비하려는 수요를 겨냥해 대표적인 난방 가전인 전기매트를 최대 25% 할인한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10월부터 결혼 성수기에 접어들고 주요 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증가해 가전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이벤트가 가전을 폐기기로 장만하려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구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현주 기자

농식품부, 우윳값 인상 업계에 협조 요청…“소비자 부담 줄여야”

우유 소비감소 대응 방안도 수립…낙농가·유업계와 TF 구성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유제품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4일 유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소비자 부담 완화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업계,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우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 1일부터 흰우유와 유제품 등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오르자 서울서울 우유 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는 제품 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흰우유 제품 가격은 대형마트에선 900ml 또는 1L 기준 3천원에 근접해졌고, 편의점에선 3천원을 넘게 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산 유제품이 소비자로

부터 외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인행사, 묶음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묶음 판매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우윳값 인상에 따라 우유를 원료로 쓰는 아이스크림, 빵,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에도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를 약 10% 인상하자 빵 가격은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우윳값 상승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유기농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자류의 경우 유제품 원료 비중이 1~5% 수준이고,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인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멀균유 수입 등의 영향으로 마시는 국산 우유 소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생산자, 유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유정 기자

미래길이 뉴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바다가 좋아하는 LG의 클린테크

내일의 바다는 오늘보다 더 맑고 투명하도록
LG의 클린테크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한 플라스틱의 변화

동물의 가죽과 나무를 대신하던 플라스틱을 이제는 지구의 바다를 위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버려진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폐식유, 식물성 원료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부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육수수에서 출한 성분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되기도 한다.

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단 3달 만에 썩어 없어져 땅은 끓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좋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버린 걸 다시 살리고 완전히 버려지도 다시 재그루하거나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틱 기술이 앞으로의 지구를 위해 더 많이 편생되겠지이다.

최근 각종 연구 조사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및 사용량이 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우려되는 대개는 물론 연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알려지면서 사용되는

규제와 함께 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0% 증인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가 소개되며 해안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바다에 탄소 흡수 해초 심는

축구장 14개 크기 '잘피' 군락지
형성 계획

바닷속 단소 품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잘피’ 군마지가 촉구장 14개 크기인
10㏊ 규모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헤엄 기우는 해초류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바닷속 난소 축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주목받는다. 10㏊ 규모 찰피 서식지는 찰피가 산아진 쇄적층을 포함해 자동차 2800대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량(약 5000T)을 흡수할 수 있다. 산림보다 흡수량이 30배 이상 많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꼽은 3대 블루카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인안의 질이 군악지는 지구 온난화와 해양 쓰레기 등으로 생존에 위협받고 있어 해원과 생태 인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잘피 서식지가 파괴되면 한소흡수 외에도 인근 생물 개체 수가 25%, 종류는 15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이 개선돼 생태계가 회복되는 만큼 인구 이촌과의 상생도 가능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클린테크

DEH, TOI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

맑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이제는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내 곁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와 해양침체에 보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실천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또는 국가 차원의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인의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론 미미한 영향이지만, 그 행동들이 모이면 지구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마다 괴시겠 전국 각지의 고방과 빠는 괴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배사점의 쓰레기 대부분은 화도와 함께 버려진 흙진흙이다. 이 땅진흙들의 접과 살과 턱선이 그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바다 생물이 대체 우리의 밥상에 올라 인간의 입에 다가온 피로로 돌아올 것은 자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환경을 생각하고 살면서 물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버자코끼리 주제하고 있다. 버자코끼리란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즐기고 쓰레기 즐기도 해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물론 해동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단위로 확장

활동, 기업들에서도 함께 나서고 있는 주체이다. 부모들과 함께 참여한 자녀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싣어갈 수 있어 앞으로의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LG logo consists of a red circle containing a white stylized 'L' shape, followed by the letters 'LG'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밤거리에서 만나는 근대…13~14일 서울 중구 ‘정동야행’

5년만에 중구 주최로 열려 33개 시설·기관 참여…“내년엔 세계화 시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13~14일 덕수궁과 정동 일대에서 역사문화 축제인 ‘정동야행’(貞洞夜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중심에서 만나다, 꿈의 랑데부’를 주제로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잊지 않았던 역사의 현장 정동을 재조명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근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정동은 근대 개화기 한창 때 신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핫플레이스’였다.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1885년), 첫 사립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1886년), 최초의 서양식 개신교회 정동제일교회(1887년), 서양식 건물의 효시인 덕수궁 석조전(1910년) 등 각종 ‘최초’ 기록도 풍성하다.

행사에는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제일교회, 국립정동극장, 서울역사박물관,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주한캐나다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등 33개 시설·기관이 참여했다.

첫날 오후 7시 덕수궁 종화전 앞 고궁 음악회로 축제의 문을 열며 14일 오후 3



정동야행 고궁음악회

시와 6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송용진 역사 강사의 ‘총내관 강의’, 오후 2시와 7시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그림과 음악, 춤, 영상, 인문학이 결합한 ‘화통 콘서트’ 등을 펼친다.

행사 기간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시설도 탐방할 수 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13일 오후 7시부터 40분간, 주한영국대사관은 14일 오후 3, 4, 5시에 30분씩 문을 연다.

주한캐나다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송내관강의, 이화여고 내부 투어는 정동야

행 홈페이지 사전 신청과 추첨을 거쳐 관람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음악을 통해 본 정동’을 주제로 팝송을 재해석한 공연, 국립정동극장 야외마당에서 커피와 차를 곁들인 공연 ‘정동다향’을 선보인다.

정동 탐방 프로그램 ‘다같이 둘자 정동 한바퀴’는 축제 기간 매시 정각과 30분에 운영한다. 국립정동극장, 중명전, 구려시 아공사관, 이화박물관,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을 들

리보는 90분 코스이며 한국어 해설은 20회, 영어해설은 4회 제공한다.

‘고종의 길’ 해설 프로그램은 14일 오후 4시와 6시 출발한다. 이를 해설 프로그램은 정동야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배어린이공원 내 해설사본부에서 현장 접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대한제국 지도 만들기, 독립선언서 쓰기, 을사늑약의 부담을 세계에 호소한 고종황제 밀서에 답장하기 등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푸드트럭과 중구의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가 운영하는 판매 부스 ‘정동 잠화점’도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정동야행은 중구가 2015년 시작하고 2018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5년 만에 다시 중구가 이어받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정동야행 행사 브리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축제로 꾸미면 좋겠다고 생각해 행사를 중구로 가져와 중구협의체, 주민과 함께 준비했다”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세계화된 포맷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신지영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우주항공청 특별법 골든타임 임박

“대승적 결단 필요”

박동식 사천시장 “과방위,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하자 박동식 사천

했다.

이어 “우주항공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며 “내일 안건조정 위원회를 정상 개최하고 반드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심사 중이다.

안건조정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에 서 검토 중이며 최종 결론은 오는 5일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다.

박 시장은 “과방위는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주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감동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민주 기자

런스’도 열린다.

이상길 엑스코 사장은 “이번 산업전이 지역 기업에 다양한 판로 개척과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정훈 기자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아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창의 + 고객중심 + 정직과 성실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KO 교보증권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11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사진은 2021년 행사 장면)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제7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이 오는 11일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한다.

4일 엑스코에 따르면 이번 산업전은 ‘미래 기초 소재산업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200여개 사가 600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다양한 미래산업과 융합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

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18회 강관산업발전세미나’, ‘친환경 금속인력사업 간담회’, ‘철강협회 ESG 세미나’, ‘철강산업 직무특강 및 채용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진행된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 최대 현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대응하는 ‘아젠다23 콘퍼

‘탄소중립을 꽂피운다’…경기정원문화박람회 6일 개막



경기도와 광명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오는 6일 광명시 일직동 새빛공원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시흥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탄소중립, 광명에서 꽂피우다’를 주제로 오는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일상의 평화에 탄소중립의 의미를 더한 다채로운 정원문화를 선보인다.

원이 주목된다.

111명의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조성한 10개의 시민정원과 시민정원사정원, 5~7세 어린이들이 조마손으로 가꾼 꽃마정원도 준비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조성된 모든 정원을 지속해서 관리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지구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정원으로 형상화한 작가정원과 생활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콘퍼런스도 6일과 7일 진행된다.

콘퍼런스는 정원사, 시민, 전문가가 각각 참여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 박람회장 우측에는 정원 관련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원산업전이 31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 최종호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QR 코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커피 향이 그리운 가을…강릉커피축제 12일 개막

누들축제·와인축제 이어져…볼거리 풍성한 강릉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강릉 대표 축제인 '제15회 커피축제'가 오는 12일 개막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다섯개의 달을 테마로 펼쳐지는 이번 강릉커피축제는 12~15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경포 호수공장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강릉커피축제는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과 전국의 커피 애호가가 모이는 강릉 대표 축제 중 하나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행사장을 2곳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심을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매년 눈길을 끌고 있는 '100人 100味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를 비롯해 총 5개 분야 대회, 각종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200여 개의 행사 부스 등이 운영된다.



커피 향 솔솔…강릉커피축제

특히 경포호수광장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오후 9시까지 커피 야시장을 열어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경포호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풍성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커피숍을 방문해 도장을 획득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랠리를 진행한다.

시는 축제가 2곳에서 치러지는 만큼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축제장 내 모든 컵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축제로 진행한다.

휠체어 리프트 셔틀버스, 휠체어 대여 등 축제 방문 환경 조성과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한 무(無)장애 축제로 개최한다.

커피축제에 이어 짬뽕, 장칼국수, 막국수, 용심이 등 강릉을 대표하는 각종 면 요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면 요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제2회 강릉누들축제'가 월화거리 일원에서 27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누들축제에서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강릉 전통 면 요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동시에 거리공연을 진행해 분위기 있는 행사장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11월에는 와인 업체와 와이너리 등 업계 전문가가 참가해 다양한 와인을 시음해볼 수 있는 '강릉와인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 최진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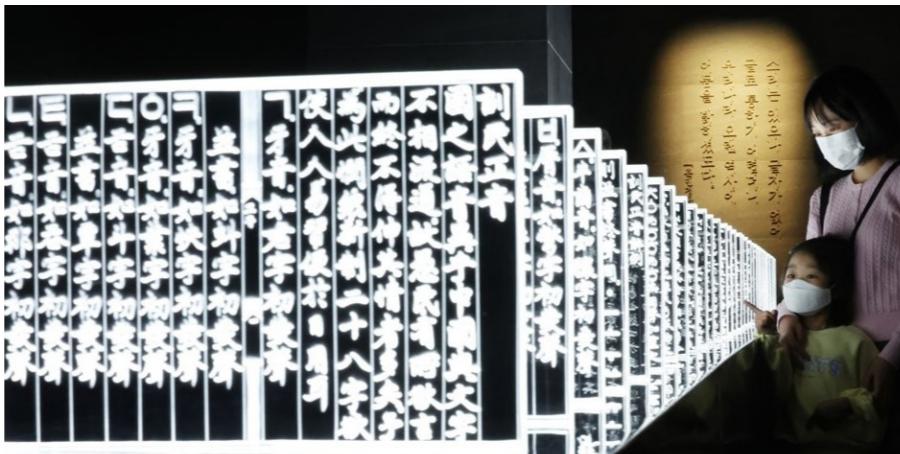
경북도청서 한글 대잔치

일주일간 한글사랑 주간 운영

경북도는 4일 오후 도청에서 한글 대잔치를 여는 등 일주일간 한글사랑 주간을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지역 대학생들이 꾸미는 한글문화 관련 공연이 무대에 올린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한글사랑 주간을 운영해 한글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한글 사랑 확산에 나선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방송인 샘 해밍턴, 이철우 경북도지사, 외국인 유학생 2명이



한글 활용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내방가사 서예 전시, 한지 관련 포럼, 한글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 오서원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도전 Green Transformation

한 발 앞서 미래를 마주하며, 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온 GS칼텍스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다각화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M&CR 사업
- **수소/CCUS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와 액화수소 생산사업
CCUS 정성수소 플라스틱 등 구축
- **화이트 바이오 사업**
기존 화학연료(화석유)로 생산되는 제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칼 사업 주도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2019년 활영된 인천항 내항 8부두

140년만에 개방되는 인천 내항

10월 14일 시민의 날 행사

인천 내항 부두 일부가 개항 후 14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된다.

놀이도 펼쳐진다.

앞서 시는 내항 8부두 부지 12만m² 가운데 2만3천m²를 시민에 개방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휴식 공간을 조성 중이다.

한편 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을 앞두고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연계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6일 인천시 시민 생활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7일 스트리트댄스 페스티벌, 14~15일 동인천 낭만 축제 등이 잇따라 열린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4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인천항 1·8부두 개방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박민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기부제 등 홍보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박수홍

1991년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한 박수홍은 예능프로그램인 '신상출시 편스토랑', '최고의 요리비결', '조선의 사랑꾼' 등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수홍은 "평소 동경하던 제주에서 청정 수산물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다"며 "제주 청정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 책임과 열정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박수홍의 홍보대사 활동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 젊은 층에 제주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딥레 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양희진 기자

'국내 최고 농경문화 체험행사' 김제 지평선축제 5일 개막

전북 김제시는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 체험행사인 제25회 지평선 축제를 오는 5~9일에 벽골제와 시내 일원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김제!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5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통 농경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벼 수확 체험, 농경문화를 재해석한 벽골제 깊신 퍼레이드, 옛 추억을 되살리는 아궁이 쌀밥 짓기, 삼색 가래떡 만들기 등이 시민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벽골제 햇불파레이드, 전설 쌍룡놀이, 풍년 기원 줄다리기, 지평선 농특산물 퍼포먼스 등 축제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도 새로운 모습으로 흥을 돋운다.

축하공연, 평화통일 기원음악회, 7080 추억의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LED 쥐불놀이, 농경 VR 체험, 짚공 차



지평선 축제의 아궁이 쌀밥 짓기

기 풋살대회, 사금 체험, 지평선 농업 드론대회 등은 올해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이다.

김제시는 이와 함께 축제장의 모든 음식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해 바가지요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종이 인쇄물 축소, 일회용품 사용 제

한 등을 통해 친환경 축제로 거듭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행사장을 찾아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AI to [Everywhere]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내 손안의 AI 친구 A.(에이닷)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사피온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X Caliber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설리번플러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미디어 AI Btv까지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A.(에이닷)

AI to 미디어

AI to 동물 의료

AI to 시작보조 서비스

AI to 반도체

AI to Everywhere
SK telecom

3세트 13-19서 역전…배드민턴 최솔규-김원호, 세계2위 꺾고 8강

3전4기 끝 첫 승…안세영·서승재-채유정·김소영-공희용도 승전보



'대역전승' 8강 진출 환호하는 배드민턴 최솔규-김원호

배드민턴 최솔규(요네스)-김원호(삼성생명)가 세계랭킹 2위 팀을 극적으로 꺾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8강에 진출했다.

최솔규-김원호(세계랭킹 15위)는 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범장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남자복식 16강전에서 중국의 랭웨이경-왕창(세계 2위)과 접전 끝에 2-1(21-10 18-21 23-21)로 역전승했다. 앞서 세계배

민턴연맹(BWF) 대회에서는 3차례 맞붙어 모두 패했는

데 아시안게임 8강 길목에서 귀중한 첫 승을 챙겼다.

한 세트씩 주고받은 3세트에서 13-19까지 끌려가던

최솔규-김원호는 포기하지 않고 격차를 줄여 경기를 드

스로 끌고 갔다. 5연속 득점으로 18-19로 턱밀까지 끊어

갔다가 매치 포인트를 내줘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으나

두 점을 악착같이 빼어내 20-20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듀스인 21-21에서 연속 득점으로 역전승을 따내며 중국 흄 관중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차갑게 식혀버렸다. 경기가 끝나고 만난 최솔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역전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유지하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원호는 맞대결 첫 승에 대해 “예전에는 상대가 두려워서 (승부를) 피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지더라도 한 번 싸워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이 잘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날 오전 다른 종목 16강전에서도 연달아 승전보가 날아왔다. 훈합복식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 국제공항)은 태국의 데차풀 푸아바라누크로-삽시리 타에랏타나차를 2-0(21-13 21-11)으로 꺾었다. 여자 단식 안세영은 압둘 라자크 파티마스 나바하(몰디브)에게 2-0(21-4 21-6) 압승을 거뒀다. 1세트는 불과 9분, 2세트는 12분 만에 끝났다. 여자 복식 김소영-공희용은 인도의 트리사 졸리-가야트리 고피찬드를 2-1(21-15 18-21 21-13)로 꺾었다.

/ 최준용 기자

선수들 사이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대를 만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LG의 성적은 82승 51패 2무, 승률 0.617이다.

만약 6할대 승률을 유지한 채 시즌을 마친다면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2년 연속 6할 승률'을 거둔다.

LG는 지난해 87승 55패 2무, 승률 0.613으로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다.

통합 우승을 차지한 1994년 정규리그(81승 45패, 승률 0.643)와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친 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1995년(74승 48패 4무)은 LG의 마지막 전성기였다.

또한 팀 역대 최다승 기록도 가시권이다.

지난해 87승이 최고 기록인 LG는 남은 9경기에서 6승을 거두면 신기록을 수립한다.

다만 남은 9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승률은 0.641이 돼 팀 역대 최고 승률인 1994년의 0.643을 깰 수는 없다.

/ 심희찬 기자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7kg급 1라운드 16강에서 한국 김현우가 이란 아민 카비아니네자드에게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레슬링 김현우·류한수, 결승 진출 실패…금빛 꿈 무산

한국 레슬링의 '쌍두마차' 김현우, 류한수(이상 삼성생명)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을 일찌감치 접었다.

김현우는 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대회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7kg급 1라운드 16강에서 이란의 아민 카비아니네자드에게 3-9로 패했다.

레슬링 첫날 노골드…정한재는 8강, 신병철은 16강에서 완패

김현우는 1피리어드 초반 상대 반칙으로 1점을 얻은 뒤 이어진 파테르 공격 기회에서 옆구르기 기술을 성공해 3-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상대 선수의 반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곧바로 2점짜리 기술 2개와 4점짜리 기술 1개를 내주며 3-8로 뒤졌다. 김현우는 온 힘을 다해 역전을 노렸으나 2피리어드에서 한 점을 추가로 내주고 패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했던 류한수의 꿈도 허무하게 사라졌다.

류한수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67kg급 8강에서 이란의 다니알 소라비에게 0-9, 1피리어드 테크니컬풀 패로 무릎을 꽂았다.

정한재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8강에서 만난 세계랭킹 1위 조라만 사센베코프(키르기스스탄)에게 0-9, 2피리어드 테크니컬풀로 패했다.

정한재 역시 조라만의 결승 진출 여부에 따라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까지 노려볼 수 있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87kg급에 나선 신병철(전북도청)도 1라운드 16강에서 떨어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 안병호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 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개막…69개국 209편 초청 상영

배우 박은빈 사회로 팽파르…개막식 손님맞이는 송강호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4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일정에 들어간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배우 박은빈의 단독 사회로 팽파르를 올린다.

배우 송강호는 집행위원장이 물러나 공석인 이번 영화제의 호스트로 나서 초청 배우와 감독 등을 맞이한다.

올해 영화제에는 개막작인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를 비롯해 69개국 209편의 공식 초청작이 부산 영화의전당 등 4개 극장 25개 스크린에서 상영된다.

경쟁 부문인 뉴 커런츠 섹션에는 한국 월(모리 다츠야 감독) 등 10편이 올라 경쟁을 벌인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윤여정에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영사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영화 '1923년 9월' 모리 다츠야 감독) 등 10편이 올라 경쟁을 벌인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윤여정에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영사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영화 '1923년 9월'



개막 앞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재미교포 영화인의 활약을 조명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이 열린다.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윤정희와 3월 별세한 일본의 영화음악가 시카모토 류

이치를 주제로 하는 특별 상영 자리도 열린다.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최근 동남아시아의 영화 강국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를 조망하는 '인도네시아 영화의 브네상스'가 마련된다. 주목받는 여성 감독 몰리 수리아의 작품 등 12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아시아콘텐츠 & 필름마켓은 부산 베스코 제1전시장 1관과 이벤트룸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영화제는 13일 오전 결산 기자회견과 이날 저녁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각 부문 시상식에 이어 폐막작 '영화의 황제'(The Movie Emperor·낭하오 감독) 상영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 이은정 기자



경찰,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꾀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고발했다.

/ 정윤주 기자

하이브 '드림아카데미' 참가자 오늘 팬 미팅…온라인 생중계



하이브 '드림아카데미' 참가자 18명과 방시혁 의장

하이브가 미국 유명 음반사 계펜 레코드와 손잡고 진행하는 글로벌 오디션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 참가자 18명이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대면 팬 미팅을 연다.

4일 하이브에 따르면 행사에는 참가자의 미션 퍼포먼스 영상을 보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한 투표에 참여한 팬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들이 초청됐다. 이날 팬 미팅은 하이브 레이블즈 플러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도 된다.

'드림아카데미' 참가자들은 두 번째 미

션을 치르기 위해 지난달 내한해 국내에 머물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최근 이들의 연습실을 깜짝 방문해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덕목은 음악과 무대, 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선배 걸그룹 러세라핌의 히트곡 '피어리스'(FEARLESS)와 '안티프레자일'(ANTIFRAGILE)로 최근 두 번째 미션을 치렀다. 두 번째 미션으로 탈락한 네 명의 참가자는 오는 9일 공개된다.

/ 황민우 기자

배우 이영애 "이승만기념관 건립 기부금, 화합하잔 의미"



배우 이영애는 3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기부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자신의 행위가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영애는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기념관 건립에 기부한 건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달 12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 예선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이영애는 "(기부의)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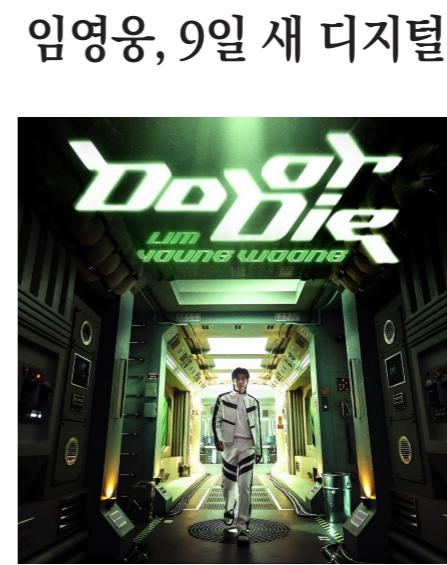
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념관 건립은 '역사 왜곡'과 결부하는 주장에 대해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역사와 전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영애는 기부금을 낼 때 김황식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오늘날 자 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우리나리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신영미 기자



가수 임영웅이 오는 9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두 오어 다이'(Do or Die)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4일 밝혔다.

임영웅은 이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새 싱글 새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임영웅은 우주선 안을 배경으로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또 강렬한 제목으로 이전 콘셉트와는 다른 음악적 변신을 예고했다.

임영웅은 오는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을 도는 전국투어 콘서트에 돌입한다.

/ 강희성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내 강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검색

「이사 갈 집이 깡통 전(월)세가
의심된다면 검색하세요!」

이용방법

- 사용자가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정보)"가 표시되며,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 전·후 할 일 및 깡통전세 유형정보 제공
-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바로가기 연결 (<https://consult.kapanet.or.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지
금융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환전에 혜택을 꽉 채웠다

KB스타뱅킹에서 만나는
KB외화머니박스

환율 낮을 때 모아두고 여행갈 때 바로 찾고
환율 우대는 최대 90%까지!
이런 게 KB국민은행의 새로운 환전혜택!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KB외화머니박스 바로가기

1 최대 90% 환율 우대

놀라운 환율 혜택은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되팔기, 선물을 자유롭게!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환전한 외화 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편하게!

*외화 실물 수령 희망 영업점별로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으나, 필요하신 권종(소액권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밀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의 현찰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시 적용한 환율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 및 이자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그외 통화 3%) *KB외화머니박스 환전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첫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